

11월 6일

레위기 4 장: 이번 장은 속죄제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속죄제에는 수소, 염소, 양, 비둘기 등이 제물로 사용되었는데, 이는 제사를 드리는 자의 신분과 경제적 형편에 따라 달랐습니다. 이 제사는 고의적인 죄가 아니라 부주의나 소홀함으로 지은 죄, 혹은 자신을 부정하게 한 죄를 속하기 위해 드려야 했습니다. 속죄제는 선택이 아닌 반드시 드려야 하는 의무 제사로, 죄로 인해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의 묵상: 죄, 벌, 용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이를 증거합니다. 우리는 죄된 본성으로 태어나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모릅니다. 설령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죄를 깨닫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인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속죄제를 명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부지중에 실수나 소홀함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때, 하나님께 속죄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번제나 소제, 화목제가 자원하는 제사였다면, 속죄제는 반드시 드려야 하는 의무 제사였습니다. 이는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길이었습니니다.

모든 사람의 생각과 말, 감정과 행동, 그리고 마음의 동기까지도 죄의 불순물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이 피할 수 없는 죄의 현실은 속죄의 절대적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속죄제는 바로 그런 죄를 덮어 주시고 옮겨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상징이었습니다. 범죄함에서 예외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제사장, 온 회중, 지도자, 평민 모두가 죄를 짓습니다. 실수나 부주의, 연약함, 무지로 범한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이며, 핑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시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본질을 지녔다고 해서 그 결과가 모두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죄는 다른 죄보다 더 큰 파괴력을 지닙니다. 대표자의 죄는 공동체 전체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대제사장의 죄가 온 백성에게 미쳤듯, 한 개인의 죄도 공동체를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대표들이 백성을 대신해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죄는 결코 개인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죄는 관계를 깨뜨리고, 사람과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요일 3:4).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나거나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죄를 범한 자는 반드시 그 값을 치러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속죄제에서 소나 양, 염소가 피를 흘리고 대신 죽어야 했습니다. 그 피흘림이 곧 죄의 대가를 상징했습니다.

하지만 속죄제는 단지 동물의 희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제사는 장차 오실 완전한 속죄 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습니다. 우리의 죄값은 그리스도께 전가되었고, 그가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짓는 무능한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아들을 통해 용서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죄인임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야 합니다. 죄를 멀리하고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그 마음에 평강과 새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의 속죄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용서와 회복이 있습니다.

묵상 질문: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마 5:4)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자신을 슬퍼하는 자가 진정한 위로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죄를 미련한 자들처럼 가볍게 여기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처럼 심각하게 여기십니까? 혹시 하나님 앞에서 “몰라서 그랬다”며 실수로 지은 죄를 부정하거나, 자신을 정당화하려 한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변명보다 회개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죄를 슬퍼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를 의지하십시오. 그분 안에서만 참된 용서와 위로가 주어집니다.

묵상하면 은혜가 됩니다!

1. 어떤 경우에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까? (2-3, 13-14, 22-23, 27-28)
2.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죄를 범하였을 경우 누가 수소의 머리에 안수를 하였습니까? (15)
3. 지도자가(족장이) 죄를 범하였을 때는 그는 희생제물로 어떤 동물을 드려야 했습니까? (23)
4. (참, 거짓)-속죄제는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였다.
5. **부지중에 지은 죄까지 사하시는 은혜:** 레위기의 속죄제는 하나님께 반역하려는 고의적인 죄를 위한 것이 아니라, 부지중에, 연약함이나 부주의로 인해 죄를 지은 사람들을 위한 제사였습니다. 이 제사는 죄인이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겼을 때,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속죄제는 반복적으로 드려져야 했습니다. 죄는 계속되고, 인간의 연약함은 끊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지막 속죄제를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9 장 25-28 절은 예수께서 “자주 자신을 드리신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에 죄를 없이 하시려고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다”고 선포합니다. 그분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의식적으로 지은 죄뿐 아니라, 알지 못하고 저지른 죄까지도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인생을 돌아보면, 고의는 아니었으나 알지 못하고 누군가를 상하게 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런 우리를 정죄하려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한 사랑의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안의 숨은 죄를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죄까지 담당하시고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우리 모두 그 은혜 안에서 다시 정결함과 평안을 누리십시오.
6. **분향단 뿔에 피를 바른 의미:** 속죄제에서 피는 죄의 대가가 치러졌음을 보여줍니다. 그 피를 향단의 뿔에 바른다는 것은 다음을 상징합니다: 첫째, 죄로 인해 막힌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됨. 향단은 하나님과의 교제(기도)의 자리인데, 그 뿔에 피를 바름으로 기도와 예배의 길이 다시 열렸다는 뜻입니다. 둘째, 속죄의 효력이 성소 안까지 미침. 죄는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성소, 곧 공동체의 예배 중심까지 더럽힌다고 여겨졌습니다. 피를 향단에 바름으로 성소도 정결케 되어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 머무를 수 있게 됩니다. 요약하면, 향단 = 기도의 자리, 뿔 = 권능과 중보의 상징, 피 = 속죄와 화목의 표징입니다. 따라서 “회막 안 향단의 뿔에 피를 바른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길이 열렸다”는 복음적 진리를 예표합니다.
7. **왜 제사장과 회중의 피만 분향단에 바르는가?:** 그들의 죄는 예배 전체를 오염시키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입니다. 그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중보와 예배 전체가 더러워진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성소 안 향단(기도와 교제의 자리)에 바름으로써, 하나님 앞의 예배 중심부를 정결하게 하는 속죄가 필요했습니다. 온 회중의 죄 역시 공동체적 죄이기 때문에, 역시 예배 중심인 성소까지 정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반면에, 족장이나 평민의 죄는 개인적·부분적 성격이므로 성소 바깥 번제단(숫제단)에서 속죄가 이루어졌습니다. 지도자일수록, 죄의 영향이 크고 깊습니다. 하나님은 지도자의 죄를 더 심각하게 다루십니다(약 3:1; 눅 12:48). 속죄의 중심은 하나님의 임재 회복입니다. 향단에 피를 바르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회복됨”을 상징합니다. 숫제단에 피를 바르는 것은 “죄 사함으로 예배의 회복”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대제사장”(히 9:11-12)으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피를 바르셨습니다. 향단 뿔에 바르던 피가 결국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하게 성취된 셈입니다.
8. **숫제단 밑에 피를 쏟는 행위(7, 18, 25, 30절):** 피는 단순한 생물학적 액체가 아니라, 생명 그 자체를 의미했습니다(레 17:11):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따라서, 피는 죄에 대한 대가로 드려진 생명을 상징했고, 하나님께 그 피를 드림으로 대속과 화목이 이루어졌습니다. 향단 뿔에 피를 바르거나 숫제단 뿔에 바른 후, 나머지 피를 제단 밑에 쏟는 것은 속죄 과정이 완전히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피가 제단 아래 흘러들어감으로, 속죄의 피가 제단 전체를 거룩하게 덮는 효과를 상징합니다. 또한 제단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와 제물의 중심입니다. 피를 그 밑에 쏟는 것은 “이 제단을 통해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예배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죄로 인해 막혔던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피로 열렸다는 신앙적 선언입니다. 또한 피를 뿌린 뒤 남은 피를 땅(제단 밑)에 쏟는 행위는 그 생명을 하나님께 완전히 돌려드리는 헌신의 표시입니다. 피를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생명으로 되돌려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러내린 그리스도의 피는 “제단 밑에 쏟은 피”처럼 하나님께 드려진 완전한 생명 제물이 되었고, 그 피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히 10:19-22).
9. **제물의 가죽과 고기를 진 밖에서 불태우라 명하신 이유:** 죄가 거룩한 진 안에 남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며, 그 죄를 대신 짊어진 제물이 진 밖에서 완전히 소멸됨으로써 죄가 완전히 제거되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이 규례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문 밖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실 것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히 13:12).